



준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rnflower@buddhapia.com



문화도량에서 배운 포교콘텐츠

“우리 절이 템플스테이를 하겠다고 신청 했더니 모두들 비웃더군요.”

조계종 총무원대 처방에서 만난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지난 에피소드를 회상하며 웃었다. 조계종 관계자 눈에는 도시와 멀리 떨어진 땅 끝 마을에 자리한 잊혀진 사찰 미황사가 수련생을 어렵하게 반갑지만 한 방 한 칸이 아쉽게 보인 까닭이다.

지는 깨 한가마니를 나누고자 부처님 전에 올린다”거나 “어린이 간식이 문제되는 이때 유기농 밀가루로 직접 만든 과자를 선물하고 싶다”거나 “산수경시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부처님 전에 감사하며 올린다”는 식의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이 만나 감동으로 어우러진다. 이들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군 땀의 결실을 도시와 농촌·남과 여·어른과 아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미황사에서 만나 도반이 된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다. <화엄경>과 <법화경>을 실은 검은 소가 누워 일어나지 않은 곳에 창건했다는 설화를 간직한 미황사는 2002년 템플스테이를 시작한 이래 매년 4,000명의 수련생이 다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한문학당과 작은 음악회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참사람의 향기’ 머금은 문화도량 1번지가 됐다.

매년 가을은 산사음악회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깊게 물드는 단풍만큼이나 따뜻한 온정도 물들이기 좋은 때다. 그러나 포교1번지 조계사 주변은 촛불 수배자들의 주경야독으로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8·27범 불교도대회 이후 국제 유가 하락·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공황의 태풍 속에서 중생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는 한국불교의 심장은 안을하기만 하다.

답답한 마음을 뽕 풀어주는 활명수와 같은 포교방안을 미황사는 어떻게 발견했을까? 불교가 고심해온 문화콘텐츠는 결국 ‘잘 사는 삶’의 방향제이다. 미황사는 미황사만의 남다른 포교 콘텐츠가 있었다.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하는 식의 획일화된 관광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성공전략이다. 예를 들어 10월 18일 불행필패불제의 ‘만물공양’이 신선한 프로그램이다. “정성스레 농사

하는 게 한가마니를 나누고자 부처님 전에 올린다”거나 “어린이 간식이 문제되는 이때 유기농 밀가루로 직접 만든 과자를 선물하고 싶다”거나 “산수경시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부처님 전에 감사하며 올린다”는 식의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이 만나 감동으로 어우러진다. 이들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군 땀의 결실을 도시와 농촌·남과 여·어른과 아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미황사에서 만나 도반이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국제템플스테이션터 착공

10월 2일 서울 신정동 현장서 개최

한국불교 세계화의 전초기지인 국제템플스테이션터가 건립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은 10월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공사현장에서 ‘국제템플스테이션터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혜홍, 조계사 주지 세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중훈 스님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성국 양천구청의 의장 등 100여 대중에 참석한 기공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국제템플스테이션터는 세계에 유례무이한 한국불교의 정신인 간화선 전문수행센터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템플스테이션터는 한국건축가협회상 2회 수상 경력의 국민대학교 김계천교수가 설계했으며, 삼한기업(주)이 시공을 맡아서 신축한다. 공사기간은 총 14개월로 2009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 2,110㎡,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11,296㎡의 종교시설이다. 800여명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고 100여명이 상주할 수 있게



국제템플스테이션터 착공식이 10월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현장 부지에서 봉행됐다. 사진=이내은 기자

설계되었으며, 향후 수도권 템플스테이 중심 거점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제템플스테이션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내·외국인들의 선(禪) 문화와 명상,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직접 체험케 하기위해 기획됐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중훈 스님은 “국제템플스테이션터는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불교문화체험시설과 교육시설·건강지

유시설 등의 복합체험시설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한국불교의 다양한 진면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의 하나이다. 또 템플스테이는 2007년 한 해 동안 8만 여 명이 참가해 전통불교문화체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등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성우·이내은 기자

조계종 10월 9~17일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제6회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을 10월 9~17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실시한다.

승랍 10년차 비구·비구니 대상의 3급 승가고시는 1차 논술, 2차 수행평가 갈마, 3차 연수교육평가를 거쳐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고시에는 비구 75명과, 비구니 32명 등 107명의 출가자가 응시했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3급 승가고시는 사찰 주지 등 소임자로서, 스승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대중에게 설법하듯이 경전 등 각 과목을 서술하면 될 것”이라 설명했다.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은 중덕(中德), 정덕(定德) 법계 품수와 말사 주지 및 교구본사 국장 소임 등이 가능하며, 도제(沙汰)를 들 수 있는 사승(師僧)의 권한을 얻게 된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기획실장·장적 스님, 재무부장·정념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장적 스님(재무부장·사진 왼쪽)이, 재무부장에 정념 스님(낙산사 주지·사진 오른쪽)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30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장적 스님과 정념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장적 스님은 성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재정국장, BBS대불교방송 본부장, 13·14대 중앙종회의원, 선본사 주지를 역임했다. 2007년 10월 9일부터 총무원 재무

부장을 맡아왔다. 현 안흥사 주지. 정념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출가, 총무원 사회부장, 영등포 보현의집 원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현 낙산사 주지. 노덕현 기자

호계원, '승려법상 양형제도와 행정심판' 워크숍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조계종 양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10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승려법상의 양형제도와 행정심판’을 주제로 제2회 호계위원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과 홍성철 변호사,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장이 발제자로 나서 ‘기소 절차와 호법부의 양형제도’, ‘심판행위와 호계원의 양형제도’, ‘호계원법에 나타난 행정심판에 대하여’를 각각 발표한다. 김성우 기자

종단협, 대구경북 불교도대회 동참

대회봉행위 소위, 10월 7일 회의서 실무준비 착수

11월 1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인 종교평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에 불교 종단들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30일 서울 하립각에서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종교연합 증식을 위한 지역별 대회를 계속 봉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1월 1일 대구경북대회의 형식과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은 10월 7일 오후 3시 동화사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 봉행위 소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현법파괴 종교연합 증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원학 스님은 “대구경북 불교도대회를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종교연합 방지, 범불교도의 호법

의지 제고를 위한 불교도 실천결의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대구경북 지역 대책위원회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3조(임원선출) 3항’을 수정해 상임이사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또 제4차 이사회에서는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장 회성 정사 휴임 상임이사로 진각종 총무부장 호심 정사를 선출했으며, 10월 7일 오후 3시 동화사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범불교도대회 봉행위 소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현법파괴 종교연합 증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원학 스님은 “대구경북 불교도대회를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종교연합 방지, 범불교도의 호법

김성우 기자



조계종 민주분, 北 양묘장 건설현장에서 식수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이장정 명진)는 9월 27일~30일 ‘통일나무심기 평양 삼석구역 양묘장 건설 현장 방문 및 백두산 참관’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민주분 부본부장 진관 스님(조계종 인권위원회), 해안 스님(낙산사 부주지), 경희 스님(서부부주지) 등 조계종 대표단과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조계종.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이사회

개방이사 원학스님등 선출

중앙승가대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 등을 선출했다. 승가학원(이사장 지관)은 10월 1일 제79차 이사회를 열고 개방형 이사에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전 기획실장 승원, 교육부장 법장, 무상 스님을 선임했다. 또 추천감사에 전 감사국장 덕관 스님을, 일반감사에 영축총림 울주 해남 스님을, 일반감사에 정인 스님과 경진 스님을 각각 선임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실적효과가 높고 정확합니다.

■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사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홍보영상홍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 동양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불교의식(범음·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10기 교육)

사단법인 전통불교영상화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범패)을 어렵하게 배울 수 있는 제10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범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단기간 집중적 교육(단기속성 7일간)으로 이론, 실기, 현장학습을 같이하여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0차 불교의식교육에 수행정진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 일시 : 불기 2552년 10월 14일(음 9월 16일) 화요일 - 10월 20일(음 9월 22일) 월요일 (7일간)
- 교육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84번지 미륵골 무각사(061-362-8902)
- 교육 대상 : 출가사문(비구, 비구니)
- 제출 서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 교육동참비 : 십오만원 (교육교재, 숙식, 제반비용 포함)
- 접수 기간 : 불기 2552년 10월 10일까지
- 접 수 : 교육원장스님 011-9607-5245
교무스님 011-604-9584 재무스님 010-3639-2946
- 생활습의는 대중처소와 같이합니다. (가사, 장삼, 목탁, 필기도구 지참요망)

■ 교육 과 목	
안채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육, 시식 등)
거체비	(1) 사물 다루는법 (2) 민바라 (3) 천수바라 (4) 다게(나비춤)

- ※ 실제 법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의식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므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 수료식 후 수료증과 함께 본회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한 스님들은 정회원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